

# “당연한 일상,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개최

-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모두의 삶이 존중받는 사회로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은 4월 20일(월) 오전 11시 워커히호텔(서울시 광진구 소재)에서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장애인의 날은 법정기념일로(장애인복지법 제14조),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다.

올해로 46회를 맞이한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복지 유공자 및 가족, 장애인 단체 관계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기념식의 슬로건인 “당연한 일상,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은 장애인을 복지의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전환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 사회통합을 만들어가는 장애인 정책의 지향점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선정되었다.

기념식은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되었으며, 청각장애 아동으로 구성된 소꿈노리 합창단의 애국가 제창이 이어졌다.

장애인인권헌장 낭독은 「보건복지부 청년장애인 포럼\*」이 진행하였다. 장애인인권헌장은 장애인의 인권과 평등을 확인하고,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위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명시하고자 제정되었다. 장애인인권헌장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 등 13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 청년장애인 10명과 장애인정책에 관심이 높은 비장애 청년 6명(총 16명)으로 구성, 청년의 삶과 일상에 기반하여 장애인 정책에 대해 제언

기념영상에서는 스스로의 선택과 책임으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젊은 장애 당사자들의 모습이 소개되었다. 영상 속 인물들은 장애인식개선 강의 및 IT 분야 활동 등을 통해 장애인이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능동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어진 수상식에서는 장애 극복 및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훈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및 올해의 장애인상이 수여되었다.

- \* 훈장 3명, 포장 3명, 대통령표창 5명, 국무총리 표창 6명, 올해의 장애인상 3명

수상자들의 주요 공적은 다음과 같다.

#### < 훈장 수상자 >

국민훈장 모란장은 38년 이상 장애인의 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임흥빈 전라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가 수상하였다. 임흥빈 대표는 장애인의 정보소외를 해소하기 위해 사비로 전남장애인신문을 제작하여 장애인에게 복지·재활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지역사회 장애인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국민훈장 목련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 온 이경옥 부산국제장애인협의회 상임고문이 수상하였다. 이경옥 고문은 1995년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통합 및 장애인의 자신감 회복에 기여했으며, 장애인 대상 정보화교육,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 등 장애인의 인식개선 및 사회참여를 위한 다수의 복지사업을 이끌어왔다.

국민훈장 석류장 수상자는 장애인의 인식 개선 및 재활에 이바지한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이다. 김락환 회장은 1992년 경북중부신문 창간을 통해 장애인도 주체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또한 사비로 재활자립복지회관을 설립하여 가구공예, 금·은 세공 기술을 통해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경북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경북 장애인 복지단체협의회 출범, 구미시 장애인 종합 복지관 준공 등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권익을 위해 활발히 활동해왔다.

#### < 포장 수상자 >

박현실 목포장애인요양원 행정지원과장은 중증장애인의 돌봄을 위해 30여 년 간 현장을 지켜왔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면서 쌓아온 중증장애인 돌봄 관련 경험과 지식을 지역사회에 전파하여 장애인 복지를 위한 저변을 확대하였다. 또한, 무연고 장애아동 후원을 통해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면서,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동료 직원들의 모범이 되어왔다.

조현찬 부산광역시 산업재해장애인협회 부회장은 산재장애인복지사업단 설립, 산재장애인종합상담지원사업 등 업무상 재해로 인해 장애를 입은 근로자의 사회복귀에 앞장서 왔다. 또한, 특성화 고등학교, 장애인고용 사업장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안전 인식을 환기하고 장애인의 인식개선에도 기여해왔다.

김종택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전남협회장은 장애인이 주도하는 봉사활동을 조직하여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 및 인식개선을 추진했으며, 지역사회의 나눔문화 확산, 스포츠 행사를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 등 장애인이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해왔다.

#### < 대통령 표창 수상자 >

허정용 신세계의수족연구소 대표는 지역사회 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자·보조기의 무상점검 및 수리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권순중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은 중증장애인의 고용지원과 복지사각 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안종태 충청북도곰두리체육관 관장은 다양한 재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지원해왔다.

민복기 하남시장애인복지관 관장은 로봇재활사업을 통한 보행성 장애인 지원과 정신장애인의 사회참여 기반을 강화해왔다.

이미선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쉼터 사회복지사는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과 거주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해왔다.

#### <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

김진 아르테문화복지회 대표는 점자교재 제작·보급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고, 음악 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위상 강화에 기여했다.

박주영 전주대학교 교수는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및 직업재활을 위한 정책지원과 장애인재활상담사·직업재활사 등 인력 양성에 헌신해왔다.

유종옥 국립소록도병원 조리주사보는 250여 명의 장애인의 식이 상태에 맞는 맞춤형 식사를 준비하고 장애 한센인 환자들을 지원해왔다.

권혜경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재활심리사는 장애아동의 일상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장애아동 부모 대상 멘토링을 통해 긍정적 가족관계 형성에 기여했다.

이귀경 평화의마을 원장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과 사회통합을 위해 헌신해왔다.

강지원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 구미지회 후원회 부회장은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 조성에 기여했다.

본 행사에서는 민복기 하남시장장애인복지관 관장과 김진 아르테문화복지회 대표가 각각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을 대표로 수상하였다.

#### < 올해의 장애인상 수상자 >

올해의 장애인상은 장애인 복지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장애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1996년 우리나라가 제1회 루즈벨트 국제장애인상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장애인 인권 향상 등 장애인 복지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장애인에게 시상하고 있다. 수상자의 주요 공적은 다음과 같다.

**유석중** 삼성화재안내견학교 프로는 장애인 보조견 기반 재활보행 서비스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증진과 사회참여를 확산하는데 기여하였다.

**이경희** 화성시장장애인누릴인권센터 센터장은 학교와 관공서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여 편견 및 차별 해소에 기여하고, 관광지 및 문화시설의 접근성 개선에 대한 인식 확산에 노력하였다.

**정원석** 한국장애인녹색재단 회장은 장애인들의 직업재활과 취업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장애인 유권자 운동, 남북장애인교류협회 설립, 여성장애인 전용 단기거주시설 설립 등 다양한 방면에서 역할을 수행해왔다.

시상에 이어 최예나 소리꾼과 크리에이터 빅마블의 축하공연을 끝으로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축사에서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권 보장은 국민주권정부 국정 의 핵심 지향점이다” 라며, “정부는 돌봄, 의료, 주거, 복지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라고 밝혔다.

또한, “사회 구성원 모두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장애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모든 국민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 라며,  
 “오늘 기념식이 존엄과 연대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강조했다.

- <붙임> 1. 제46회 장애인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명단  
 2. 제30회 올해의 장애인상 수상자 명단  
 3. 올해의 장애인상 제정 및 추진 경위  
 4. 장애인 인권헌장  
 5.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포스터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문수 (044-202-3280)
		담당자	사무관	최진우 (044-202-3281)
담당 부서	한국장애인개발원 대외협력부 소통홍보팀	책임자	부 장	박영순 (02-3433-0640)
		담당자	과 장	이혜림 (02-3433-0663)

**붙임 1**

**제46회 장애인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명단**

○ 국민훈장 3명(모란장 1, 목련장 1, 석류장 1)

구 분	성 명	소속/직위	공 적 요 지
① 국민훈장 모란장		전라남도장애인 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인한 지체장애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자립 및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li> <li>○ 장애인의 정보소외를 해소하기 위해 사비로 전남장애인신문을 제작하여 복지, 재활 등 정보 제공</li> <li>○ 지역사회 장애인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해 전라남도 장애인 민원상담센터를 설치,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li> </ul>
	임흥빈 남, 65세		
② 국민훈장 목련장		부산국제장애인 협의회 상임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장애인 통일염원 대행진' 행사 봉사활동('95~'25)을 통해 사회통합 및 장애인의 자신감 회복에 기여</li> <li>○ 장애인 정보화 교육,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사업 등 장애인의 인식개선 및 사회참여를 위한 복지사업에 참여 및 후원 다수 진행</li> <li>○ '03년 부산세계장애인대회, '25년 한·일 장애인 교류 복지시설 탐방 등 장애인 권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지속 지원</li> </ul>
	이경욱 남, 68세		
③ 국민훈장 석류장		한국교통장애인 협회 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사고로 인한 허반신 마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장애인의 재활에 기여</li> <li>○ 경북중부신문 창간('92년)을 통해 장애인도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으며, 사비로 경북 구미시에 재활자립복지회관(가구공예, 금·은 세공)을 건립하여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에 기여</li> <li>○ 경북장애인 기능경기대회 개최('90년), 경북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출범('00년), 구미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준공('00년) 등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권익을 위해 활발히 활동</li> </ul>
	김락환 남, 74세		

○ 국민포장 3명

구분	성명	소속/직위	공적요지
① 국민포장		목포장애인요양원 행정지원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증장애인의 케어기술과 밀접한 여러 실천기술들을 개발하여 매뉴얼화하고 지역 및 관련 단체에 보급</li> <li>○ 전문적인 지식 및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내의 동종 업무종사자에게 도움 제공</li> <li>○ 무연고 장애아동을 오랜기간 결연·후원하는 등 사회복지기관 및 외연단체들을 지속적으로 후원</li> </ul>
	박현실 여, 56세		
② 국민포장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장애인협회 부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좌측 상지 절단)에도 불구하고, 산재장애인복지사업단 설립, 산재장애인종합상담지원사업 운영 등 업무상재해로 장애를 입은 근로자의 사회복귀에 노력</li> <li>○ 특성화 고등학교, 장애인고용사업장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안전 및 장애인식개선에 기여</li> <li>○ 론볼 보급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생활체육 환경 조성</li> </ul>
	조현찬 남, 70세		
③ 국민포장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전남협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이 주도하는 봉사활동 조직을 추진하여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수혜의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함</li> <li>○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 스포츠 행사를 개최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 등 장애인의 사회적 소외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li> <li>○ 후원처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게 하고, 기업과의 후원연계를 통해 장애인 부부의 결혼식, 신혼여행 지원</li> </ul>
	김종택 남, 63세		

○ 대통령 표창 5명

구분	성명		소속/직위	공적요지
① 대통령 표창		허정용 남, 63세	신세계의수족 연구소 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연수를 통한 선진 의지·보조기 기술을 습득하여 국내에 도입을 통해 국내 의지·보조기 기술향상과 학문적 발전에 기여</li> <li>○ 기업 및 대학과의 산학협력과 다양한 대외활동을 통해 의지·보조기 산업을 선도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기여</li> <li>○ 지역사회 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지·보조기의 무상점검 및 수리서비스 제공</li> </ul>
② 대통령 표창		권순종 남, 65세	영천시장애인종합 복지관 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천시와 장애인일자리사업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지역 내 장애인 고용확대 기반 마련</li> <li>○ 발달재활서비스 최우수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사회복지시설 평가 5회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되는 등 복지관을 원활하게 운영</li> <li>○ 영천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및 영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위원으로 활동하여 지역사회 복지 거버넌스 강화에 기여</li> </ul>
③ 대통령 표창		안종태 남, 60세	충청북도곰두리 체육관 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총북선수단 훈련·지도, 곰두리체육관(장애인체육시설)을 운영하며 장애인에게 다양한 재활체육 서비스 제공 등 장애인의 건강한 삶 지원</li> <li>○ 장애아동 수영캠프, 장애인 건강관리실 설치(체지방 분석, 혈당·혈압 측정 등) 장애인의 건강관리 지원</li> <li>○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등 장애인 복지를 위한 활동 다수</li> </ul>
④ 대통령 표창		민복기 남, 61세	하남시장애인복지관 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복지관 신규후원 확보, 직업훈련·일자리사업 운영, 대학교 강의 등을 통해 복지증진 및 발전에 공헌</li> <li>○ 하남시 최초 전문 로봇재활사업 구축확대를 통해 약 6.5천명의 보행성 장애인 지원</li> <li>○ 바리스타, 요리교실 등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사회참여 기반을 강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하여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 환경 조성</li> </ul>
⑤ 대통령 표창		이미선 여, 53세	쉼터 선임사회복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 거주인에 대한 식사지원, 신변처리, 개인위생 등의 일상생활 지원 업무 수행</li> <li>○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 개개인에 대한 깊은 이해 및 보완대체의사소통(AAC) 개발을 통해 개인별 서비스 지원</li> <li>○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통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장애인 복지 전문가로서 후배 직원들에 멘토역할 수행</li> </ul>

○ 국무총리 표창 6명

구분	성명		소속/직위	공적요지
① 국무총리 표창		김진 남, 54세	아르테문화복지회 대표	○ 교육부 점자교과서 제작 매뉴얼 위원 참여 등을 통해 점자 교재 제작 및 보급에 힘씀
② 국무총리 표창		박주영 여, 52세	전주대학교 교수	○ 재활학과 전임교원으로 장애인재활상담사, 직업재활사, 직업능력평가사 등 장애 감수성 높은 재활전문가 배출
③ 국무총리 표창		유종욱 여, 59세	국립소록도병원 조리주사보	○ 매일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장애 한센병 환자를 대상으로 급식 등 서비스 제공
④ 국무총리 표창		권혜경 여, 55세	경상남도장애인 종합복지관 팀원	○ 33년간 66,000명이 넘는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심리치료·부모상담·부모교육 등 서비스 제공
⑤ 국무총리 표창		이귀경 여, 67세	평화의 마을 원장	○ 24년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여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고용을 실현
⑥ 국무총리 표창		강지원 여, 60세	경북시각장애인 연합회 구미지회 후원회 부회장	○ 구미지회 후원회 부회장으로서 많은 사람을 후원에 동참하게 하고 오랜 기간 식품을 후원하여 시각장애인 자립생활에 기여

구 분	성 명		소속/직위	공 적 요 지
① 올해의 장애인상		유석종 남, 43세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맹학교 대상 설명회를 통해 시각 장애학생과 교사 대상으로 장애인보조견에 대한 기초인식 확산과 이해 증진에 기여</li> <li>○ 시각장애인 대학 신입생 대상으로 캠퍼스 보행지도, 장애인 보조견 관련 제도 개선 지속 노력</li> </ul>
② 올해의 장애인상		이경희 여, 58세	화성시장장애인 누릴인권센터 센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 및 상담원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사업 등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향상에 기여</li> <li>○ 관광지 및 문화시설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장애인권강사 양성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증진 및 시민들의 인식개선에 역할 수행</li> </ul>
③ 올해의 장애인상		정원석 남, 65세	한국장애인 녹색재단 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들의 직업재활과 취업,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여성장애인 전용 단기거주시설 설립 등 활동</li> <li>○ 장애인 유권자운동, 남북 장애인 교류 등 다양한 방면에서 장애인의 권리증진을 위해 노력</li> </ul>

**□ 제정 배경 및 목적**

- '96. 9. 15 우리나라가 제1회 루즈벨트 국제장애인상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이 상금이 모든 장애인들에게 뜻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1997년 「올해의 장애극복상」을 제정('09년부터 「올해의 장애인상」)
- 장애인 인권향상 등 장애인복지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장애인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사회통합에 기여

**□ 수상자 선정 및 운영**

- 장애인복지단체장 및 사회인사로 「올해의 장애인상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상자를 선정하고,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
- 재원은 루즈벨트 국제장애인상 상금 5만 달러를 기초로 기금을 조성, 매년 기금이자 수입으로 운영
  - \*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기금관리와 운영을 담당

**루즈벨트 국제장애인상**

루즈벨트 국제장애인상은 소아마비 장애인으로서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의 위기를 극복하고 유엔창설에 크게 이바지한 고 루즈벨트 미국대통령을 기리기 위해 1995년 루즈벨트재단(회장 벤덴 J휴벨)과 세계장애인위원회(회장 알렉라익)가 공동 제정

우리나라는 1982년 유엔이 채택한 「장애인 행동계획」의 실천과 장애인에 대한 복지향상에 크게 노력한 공로로 제1회 수상국으로 선정(1996년)

## 장애인 인권헌장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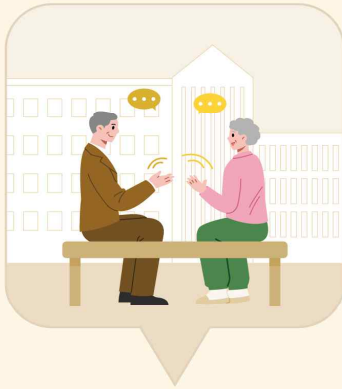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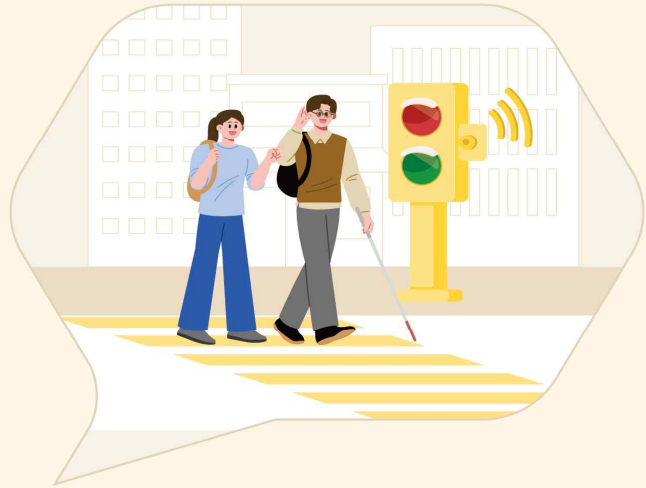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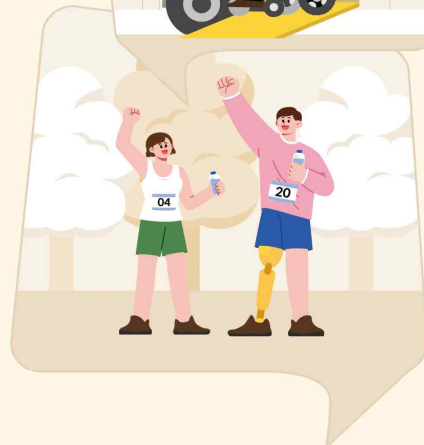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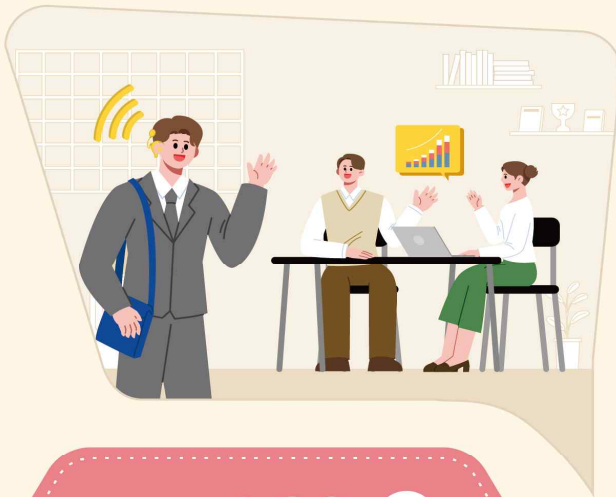
1.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교육 및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2.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 주거,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4.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하며, 의사 표현과 정보 이용에 필요한 통신, 수화통역, 자막, 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5.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장애인은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7. 장애인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8. 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이 전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경이나 생활조건은 같은 나이 사람의 생활과 가능한 같아야 한다.
9.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 학대 및 멸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 된다.
10. 장애인은 자신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1. 여성 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2. 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3.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는 국가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과 가족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결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당연한 일상,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 장애인의 날 제46회



2026.4.20. 월

11:00~11:45

워커히호텔 B2 비스타홀